

동동 내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德으란 곰비에 받잡고
福으란 림비에 받잡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디
누릿 가온디 나곤
몸하 흥올로 널서
:아으 動動다리

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 燈스블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흥
아으 滿春 들윗고지여
늑미 브를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곳고리새여
므슴다 ㉡ 錄事니몬
넛 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月 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츰 藥은
즈믄 힐 長存흥샷
藥이라 받잡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브룬 ㉢ 빗 다호라
도라 보실 니믈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ㄱ 七月스 보로매
[A] 아으 百種 排흥야 두고

니믈 훈디 녀가저
顧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스 보로몬
아으 嘉俳나리마룬
니믈 뵈셔 녀곤
오늘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九月 九日애
아으 藥이라 먹논
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흥애라
:아으 動動다리

十月애
아으 저미연 ㉣ 브룟 다호라
것거 브리신 後에
디니실 흥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스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 두퍼 누워
슬흘스라운더
고우닐 스식옴 널서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스 분디남?로 갓곤
아으 나솔 盤잇 ㉥ 저다호라
니미 알피 드러 열이노니
㉦ 소니 가재다 므룩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黃花

0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 연의 끝에 후렴구를 배치하여 분절된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영탄적 어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계절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자연물과의 대조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비유적 형상화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초월적 세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0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동」은 월령체 형식의 고려가요로, 민간에서 전승되던 노래가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송축(頌祝)의 기능과 남녀간의 애정이라는 서정적 요소가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서사에서는 임의 덕과 복을 비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본사에서는 각 달의 세시 풍속과 결합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 버림받은 신세에 대한 한탄 등 개인적인 정서가 주를 이룬다. 특히 화자는 자신을 버려진 물건에 비유하거나,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을 계절적 배경과 대비하여 슬픔을 극대화한다.

- ① 서사에서 '德'과 '福'을 비는 행위는 〈보기〉에서 언급한 궁중 음악으로서의 송축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② 정월의 '나릿 므른'이 녹으려 하는 모습은 화자의 '흐울로 널서'라는 고독한 상황과 대비되어 슬픔을 심화시키겠군.
- ③ 이월의 '燈入불'은 임의 뛰어난 인품을 예찬하는 소재로, 화자가 임을 향해 품고 있는 숭모의 정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오월의 '藥'을 바치는 행위는 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으로, 서사에서 나타난 송축의 의미가 본사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유월의 '별해 브른 빗'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것으로, 임에 의해 선택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수용을 강조하겠군.

0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임의 외양적 화려함을 강조하여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을 투영하고 있다.
- ② ㉡은 화자의 신세를 비유한 소재로, 임과의 인연이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은 버림받은 화자의 가련한 처지를 형상화하여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집약하고 있다.
- ④ ㉢은 화자의 정성이 담긴 매개체이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화자의 좌절을 유발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임에게 다가가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적 가치를 지닌 소재들이다.

04

㉠ '錄事'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 ② 자신을 잊고 소식을 전하지 않는 임에 대해 서운함과 야속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높은 관직에 올라 자신을 멀리하는 임의 상황을 이해하며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
- ④ 임이 화자를 잊은 이유가 외부의 압력 때문임을 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임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다시 찾아오지 않는 임의 무심함을 비판하고 있다.

05

윗글의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월에는 자연의 순환과 대비되는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② 삼월에는 임의 아름다운 모습이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칠월에는 세시 풍속을 빌려 임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 ④ 구월에는 약으로 먹는 국화꽃이 집 안에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적막함을 느끼고 있다.
- ⑤ 십일월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 홀로 누워 지내며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06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칠월의 제사 의식과 팔월의 축제 분위기를 대조하여 화자의 소외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임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칠월)이 실현되지 못한 현재의 곁핍(팔월)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타인과 어울리는 즐거움보다 임과의 단독적인 만남이 지니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 ④ 계절적 의례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이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⑤ 임의 부재로 인해 명절의 본래적 의미가 화자에게는 퇴색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07

⑥ '소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와 임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여 화해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인물이다.
- ② 화자가 임에게 전달하려던 정성을 가로채어 화자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존재이다.
- ③ 임의 소식을 화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화자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주는 매개자이다.
- ④ 화자의 정성이 부족함을 꾸짖으며 화자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대상이다.
- ⑤ 임을 대신하여 화자의 곁을 지켜줌으로써 화자의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존재이다.

0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화자는 임의 덕과 복을 기원하며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임의 모습을 만인이 우러러볼 등불과 같다고 예찬한다.
- ③ 화자는 수릿날 아침에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약을 바치고 있다.
- ④ 화자는 추석날 밤에 임을 모시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선달에 정성껏 깎은 젓가락을 임의 상 위에 직접 올려놓았다.

09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과의 이별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내면의 평온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 ② 임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바탕으로 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일관된 자세를 보인다.
- ③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④ 임과의 재회를 방해하는 현실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 ⑤ 임이 자신을 떠난 이유를 탐색하며 과거의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다.

10

윗글의 '곳고리새'와 '나릿 느른'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화자의 슬픔을 대변하는 소재이다.
- ②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 ③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고독감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임과 화자 사이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 ⑤ 세월의 무상함을 드러내어 화자의 허무주의적 태도를 심화시킨다.

11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려가요에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는 대개 수동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때로는 임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강렬한 비유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한다. 특히 '버려진 사물'에 자신을 투영하는 방식은 임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화자의 비극성을 극대화하며, 이는 당시 신분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정서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① 유월의 '빗'과 시월의 '부룻'은 〈보기〉에서 언급한 '버려진 사물'로서 화자의 비극적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도라 보실 니를 적곰 좇노노이다'라는 표현은 임에 대한 화자의 수동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이겠군.
- ③ '디니실 흐 부니 업스샷다'는 임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고 소외된 화자의 쓸쓸함을 강조하는 것이겠군.
- ④ 화자가 자신을 '빗'이나 '부룻'에 비유하는 것은 임의 관심을 끌어 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겠군.
- ⑤ 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저'를 다른 이가 가져가는 상황은 화자의 헌신이 보상받지 못하는 비극성을 심화시키겠군.

12

윗글의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호라'를 반복 사용하여 대상과 화자의 처지를 선명하게 비유하고 있다.
- ② '아으 動動다리'라는 의성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므슴다', '넋고신더' 등의 의문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즈믄 힐 長存호살'과 같은 과장된 표현으로 임에 대한 추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의 생태적 특성을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결부하여 임의 성품을 예찬하고 있다.

13

윗글의 시간적 배경과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순환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점차 희망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② 각 달의 세시 풍속을 나열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사회적 제약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예찬에서 원망으로 급격히 전환된다.
- ④ 일 년이라는 시간의 틀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이 지속되고 심화됨을 나타낸다.
- ⑤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과 현재의 고통을 달마다 교차시켜 화자의 혼란을 부각한다.

14

㉮ '부룻'에 담긴 화자의 자기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쓸모가 없어져 버려진 존재로서의 비애
- ②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존재의 해방감
- ③ 시련을 겪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내면의 의지
- ④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소박함을 추구하는 자세
- ⑤ 임과의 재회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

15

윗글의 화자가 〈보기〉의 인물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한 여인이 정성껏 수놓은 비단 주머니를 임에게 보내려 한다. 그녀는 임이 이 주머니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이 주머니를 먼저 보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며 임의 집 앞을 서성이고 있다.

- ① "임의 덕과 복을 비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 주머니의 전달 여부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 ② "임은 만인이 우러러보는 등불 같은 분이니, 당신의 정성도 반드시 알아주실 것입니다."
- ③ "세월이 흐르면 꽃이 지듯 임의 마음도 변할 수 있으니, 너무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④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라도 뜻밖의 인연이 끼어들어 일이 어긋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 ⑤ "임이 당신을 잊었다라도 꾀꼬리새처럼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니 희망을 잃지 말고 기다리세요."

01 표현상 특징 파악

부분→전체

정답: ① 매 연의 끝에 후렴구를 배치하여 분절된 시상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출제의도]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인 분연체와 후렴구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① 윗글은 각 달의 흐름에 따라 연이 나누어지는 분연체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각 연의 끝에 '아으 動動다리'라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각기 다른 시상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묶어주는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영탄적 어조('~르셔', '~온데')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주로 화자의 외로움이나 슬픔을 집약하는 것이지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을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③ 자연물(시냇물, 꾀꼬리새 등)과 화자의 처지를 대조하여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 갈등을 해소하고 있지는 않다.
 ④ 과거의 인연을 회상하는 부분은 있으나, 상황의 원인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태도는 작품 전체의 서정적 성격과 거리가 멀다.
 ⑤ 비유('燈人불', '빛' 등)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 모습이나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지 초월적 세계를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02 종합적 감상

개념혼동

정답: ⑤ 유월의 '별해 부른 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것으로, 임에 의해 선택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수용을 강조하겠군.

[출제의도]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작품의 세부 구절이 지닌 함축적 의미와 화자의 태도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유월령의 '별해 부른 빛'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것이 맞지만, 화자는 '도라 보실 니를 적곰 좇니노이다'라고 하며 임을 조금이라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체념적 수용'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서사는 임의 덕과 복을 비는 내용으로 송축의 성격을 지닌다.
 ② 정월령에서 녹으려 하는 시냇물(생동감)과 혼자 살아가는 화자(정체/고독)의 대비는 화자의 슬픔을 부각한다.
 ③ 이월령에서 임을 등불에 비유한 것은 임의 훌륭한 모습을 예찬하는 것이다.
 ④ 오월령의 약을 바치는 행위는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송축적 성격을 띤다.

03 시어의 문맥적 의미

조건누락

정답: ④ ㉞은 화자의 정성이 담긴 매개체이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화자의 좌절을 유발하고 있다.

[출제의도]

주요 비유적 시어들이 문맥 속에서 화자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㉞(젓가락)은 화자가 임에게 바치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것이지만, 정작 임이 아닌 '소니(손님)'가 가져가 버림으로써 임과 인연을 맺으려던 화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은 임의 인품을 예찬하는 것이지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② ㉡은 버림받은 처지를 나타내지만, 화자는 여전히 임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므로 '완전한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
 ③ ㉢은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지만, 시 전체의 맥락상 임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보다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슬픔에 가깝다.
 ⑤ ㉠은 임을 비유한 대상이며, ㉞은 화자의 정성을 담은 소재이나 이를 모두 '도구적 가치'로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

04 소재의 기능 분석

유사어혼동

정답: ② 자신을 잊고 소식을 전하지 않는 임에 대해 서운함과 야속함을 드러내고 있다.

[출제의도]

특정 시어(임의 신분)를 통해 화자가 임에게 느끼는 구체적 인 감정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사월령에서 화자는 잊지 않고 찾아온 '꾀꼬리새(꾀꼬리)'와 달리, 자신을 잊고 소식이 없는 '녹사'님에 대해 '므슴다(무엇 때문에)'라며 서운함과 야속함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서운함은 있으나 복수를 다짐하는 공격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임의 상황을 이해하는 관용적 태도는 지문에 근거가 없다.
 ④ 외부의 압력에 대한 언급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⑤ 장소를 찾아오지 않는 것보다 화자 자신을 '잊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05 시적 상황의 인과관계 추론

인과역전

정답: ⑤ 십일월에는 추운 날씨 속에서 홀로 누워 지내며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출제의도]

각 연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세밀하게 대조하여 적절성을 판단한다.

[정답 풀이]

- ⑤ 십일월령에서 화자는 홀적삼을 덮고 누워 슬픈 신세를 한탄하며 '고우닐 스식옴 녀셔(고운 이를 제각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단절된 상황에 대한 슬픔이지 재회를 확신하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정월령에서 시냇물은 녹으려 하는데 자신은 혼자라는 점에서 고독을 느낀다.
 ② 삼월령에서 진달래꽃 같은 임의 모습이 남의 부러움을 산다고 표현했다.
 ③ 칠월령(백중)에 임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원을 빌고 있다.
 ④ 구월령에서 국화꽃이 핀 고요한 집안의 분위기를 '가만하랴라'라고 표현하며 적막함을 드러낸다.

06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

조건누락

정답: ⑤ 임의 부재로 인해 명절의 본래적 의미가 화자에게는 퇴색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출제의도]

특정 구간 내의 시상 전개와 화자의 심리를 통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칠월(백중)과 팔월(가배)은 모두 즐거운 명절이지만, 화자는 임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백중날에는 소원을 빌고, 가배날(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임을 모셔야만 진정한 추석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두 달의 분위기를 대조하기보다는 임의 부재라는 공통된 상황에 초점이 있다.
 ② 소망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맞으나, 팔월령의 핵심은 '임이 있어야 진정한 명절'이라는 조건적 인식이다.
 ③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정성이 심화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임의 부재로 인한 결핍의 확인에 가깝다.

07 밑줄 친 부분의 기능

개념혼동

정답: ② 화자가 임에게 전달하려던 정성을 가로채어 화자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존재이다.

[출제의도]

시적 상황 속에서 특정 인물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임 앞에 젓가락을 놓았으나, 뜻밖에도 '소니(손님)'가 이를 가져가 버린다. 이는 임과 인연을 맺고자 했던 화자의 정성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되어 결국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임의 소식을 전하는 인물이 아니다.
 ④ 화자를 꾸짖는 내용은 없다.

- ⑤ 화자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보다는 화자의 계획을 어긋나게 만드는 방해자에 가깝다.

08 내용의 사실적 이해

조건누락

정답: ⑤ 화자는 선달에 정성껏 깎은 젓가락을 임의 상 위에 직접 올려놓았다.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적인 동작과 상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젓가락을 깎아 '니의 알피 드러 얼이 노니(임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라고 하였으나, 이는 임의 상에 올린 행위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손님이 가져갔으므로 '직접 올려놓아 인연이 맺어졌다'는 식의 완결된 행위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나 술 盤잇 저'라고 하여 소반 위의 젓가락임을 명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서사에서 덕과 복을 빌고 있다.
 ② 이월령에서 임을 등불에 비유했다.
 ③ 오월령에서 약을 바치고 있다.
 ④ 팔월령에서 임을 모셔야 진정한 추석이라고 하며 부재 상황을 슬퍼하고 있다.

09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부분→전체

정답: ③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 전체에 흐르는 화자의 정서적 층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윗글의 화자는 임의 덕을 빌고 예찬하면서도(서사, 2, 3월), 자신을 잊은 임을 원망하고(4월), 버림받은 신세를 슬퍼하며(6, 10월), 홀로 지내는 고독을 한탄하는(1, 11월) 등 다양한 감정을 월령체 형식에 담아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내면의 평온을 찾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며 슬픔이 지속된다.
 ② 송축의 의미가 있으나, 사월령 등에서 나타나는 원망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일관된 충성심'으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④ 장애물(손님 등)이 나타나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성찰적 태도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10 시어의 기능적 비교

개념혼동

정답: ③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고독감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출제의도]

서로 다른 연에 등장하는 소재들의 공통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③ '나룻 뜨른'은 녹으려 하며 생동감을 띠는데 화자는 혼자이며, '곳고리새'는 잊지 않고 찾아왔는데 임은 오지 않는다. 따라서 두 소재 모두 화자의 외로운 상황과 대비되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의인화 등)이라기보다는 상황적 대비를 위한 객관적 상관물이다.
② 이상적 세계와는 관련이 없다.
④ 소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⑤ 세월의 무상함보다는 임의 부재와 고독에 초점이 있다.

11 종합적 감상

인과역전

정답: ④ 화자가 자신을 '빗'이나 '부룻'에 비유하는 것은 임의 관심을 끌어 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겠군.

[출제의도]

보기의 핵심 논지를 작품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④ <보기>에서는 '버려진 사물'에 자신을 투영하는 것이 화자의 비극성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적극적 의지'로 해석하는 것은 보기의 내용과 상충하며, 작품 속 화자의 태도와도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 ① 빗과 보리수나무(바랏)는 모두 버려진 물건으로 화자를 비유한다.
② 임을 따르겠다는 태도는 현실적이다.
③ 아무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소외된 화자의 처지를 나타낸다.
⑤ 젓가락을 남이 가져가는 상황은 화자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비극적 상황이다.

12 표현 기법의 파악

개념혼동

정답: ⑤ 자연물의 생태적 특성을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결부하여 임의 성품을 예찬하고 있다.

[출제의도]

작품에 사용된 다양한 수사법과 그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윷글에서 임을 '燈스불'이나 '돌윗고지(진달래꽃)'에 비유하여 예찬하고 있으나, 이는 대상의 외양적 아름다움이나 광휘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자연물의 '생태적 특성'을 '도덕적 가치'와 연결하여 풀이한 것은 아니다(예: 매화의 지조 등).

[오답 풀이]

- ① '~갈구나'라는 뜻의 '다호라'를 통해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② 후렴구의 복소리 의성어를 통해 리듬감을 준다.
③ 의문형 어미를 통해 임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을 표현한다.

- ④ '천 년이나 오래 사시라'는 표현은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과장적 축원이다.

13 시간적 구조의 이해

부분→전체

정답: ④ 일 년이라는 시간의 틀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이 지속되고 심화됨을 나타낸다.

[출제의도]

월령체 형식이 시상 전개에서 갖는 구조적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④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달의 풍속과 화자의 처지를 결합하여, 임을 향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일 년 내내 지속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화자의 정서는 시종일관 고독과 슬픔에 머물러 있으며 희망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② 세시 풍속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일 뿐, 사회적 제약을 묘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③ 예찬과 원망, 그리움 등이 섞여 나타나지만 이를 '급격한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과거와 현재의 교차보다는 현재의 지속적인 고통에 초점이 있다.

14 시어의 함축적 의미

유사어혼동

정답: ① 쓸모가 없어져 버려진 존재로서의 비애

[출제의도]

특정 비유 시어에 담긴 화자의 자아 인식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① 십월령의 '부룻(보리수나무)'은 잘게 썰어 놓은 나무로, 꺾여 버려진 뒤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존재이다. 이는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쓸쓸하고 비참한 자기 인식을 투영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② 해방감과는 거리가 멀다.
③ 내면의 의지를 다지는 맥락이 아니다.
④ 소박함의 추구가 아니라 버려진 슬픔이다.
⑤ 재회를 위한 겸손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의 표현이다.

15 문맥적 상황 추론

맥락이탈

정답: ④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라도 뜻밖의 인연이 끼어들어 일이 어긋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출제의도]

작품의 결말부 상황(젓가락 에피소드)을 외부 사례에 적용하여 교훈적 의미를 도출한다.

[정답 풀이]

- ④ 윷글의 십이월령에서 화자는 임을 위해 젓가락을 준비했지만 '손님'이 가져가 버리는 상황을 겪었다. 이는 <보기>의 여인이 걱정하는 '다른 사람이 먼저 보게 되는 상황'과 맥락이

닿아 있으며, 화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절한 조언이 된다.

[오답 풀이]

- ① 전달 여부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은 화자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 ②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확신은 작품의 비극적 결말과 상충한다.
- ③ 세월의 무상함에 대한 조언은 십이월령의 구체적 상황과 거리가 있다.
- ⑤ 피꼬리새는 돌아왔지만 임은 오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조언이 아니다.